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

2015년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수상작



세계인의 잠재력이 꽃피는 활기찬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발간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영춘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최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인의 날이 처음 제정된 2007년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180만 명을 넘어서고 그 출신국가도 191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삶이 현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은 국적과 인종 등 모든 '차이를 넘어서',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 여러분들이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재한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동적인 사연들이 담긴 이 수기집이 이민자들에게는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국민들에게는 이민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슴 속 애정을 긍정의 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촉매가 되길

: 발간사



행정자치부 차관

김 세 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제8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 소중한 사연을 담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기공모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희망과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더불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외국인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년간 중풍으로 몸져누운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갑작스런 남편의 뇌경색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결혼 이민자의 사연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딸을 홀로 키우면서도 하루 4~5시간만 자면서 학업을 계속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 대학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연은 한 편의 인간승리 드라마를

보는 듯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15년 현재 17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사촌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따뜻하게 포용하려는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기집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배려’

: 심사평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황 용 주

한국은 빠르게 이민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사회는 이민자들에 대해 관심이 적고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에 응모한 응모작을 심사하며 우리 사회의 적응하고 살아가는 이주민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말로 글을 쓰고 공모대회에 응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능력이 조금은 서툴러서 때로는 문장이 어색하고 철자도 틀린 표기들도 있었지만 응모자들의 삶의 열정과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번 대회 심사 대상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부문에 114편, 그리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부문에 50편이었다. 응모작들은 대체로 결혼이주 여성들의 이야기, 유학생들 이야기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한국에 와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는 과정, 가족의 사랑, 한국을 사랑하는 과정 등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도 응모되었다. 응모작 하나하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이야기라 생각되지만 감동이 있고 구성이 좋은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외국인 대상 작품의 수상작을 살펴보겠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이란 작품이 외국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야기 곳곳에 대화를 걱정하게 넣어 수상자의 이야기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글 중간 중간 대화를 넣은 것은 독자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해줘 호감을 갖게 해준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편견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가족애를 느끼게 해준 글이다. 우수상은 “네팔에서 나의 꿈 한국에서 키우다”라는 글과 “아버지와 젓가락”이란 글이 수상하였다. “네팔에서 나의 꿈 한국에서 키우다”는 네팔 유학생이 한국을 이해하고 장차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고국에 돌아가서 꿈을 펼치겠다는 청년의 이야기이다.

새로운 삶에 적응한 모습은 대단

: 심사평



한국문인협회 이사(소설가)

최 성 배

언어와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새로운 삶에 적응한 모습은 대단하다. 인간적인 믿음과 자기 자신의 눈물겨운 처지를 진취적으로 바꿔 국민으로 정착한 아픈 사연들이다. 편 편마다 거의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응모작들은 탄실한 주제와 한껏 물오른 문장구사력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힘들었다.

러시아의 친정아버지를 초청하여 한국의 젓가락 등 전통문화를 교감하면서 깨닫는 체험과정을 찬찬히 쓴 「아버지와 젓가락」, 모국에서 불행한 성장기를 딛고 한국의 유학생생활 중 다양한 생활체험, 특히 독도를 방문하여 한국을 사랑하게 된 내력을 쓴 「네팔에서 나의 꿈 한국에서 키우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이, 전처소생 자녀들의 반항심을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감싼 후에 온가족이 행복하게 귀결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을 다시 가렸다.

단순한 문장력이 다소의 흠이었지만, 체험수기의 특성상 삶이 제대로 투영되어 작품으로 녹아있는 〈환티투하〉의 「내가 사랑한 남자의 딸」을 최우수작으로 뽑고, 나머지 두 작품을 우수작으로 했다.

장려상을 포함하여 모든 작품들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법도 당연히 고려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가 본질인 체험수기임을 감안했음을 밝힌다. 전체적으로 응모작들이 질 좋은 작품이었음에 이의가 없다.

역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귀감이 된다

: 심사평



한국문인협회 과정소설가

김 연 선

출생과 성장 배경이 달랐음에도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을 소통하여 극복하고, 한국에 귀화하여 거듭나려는 노력은 모든 국민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전체 작품 거의 감동적이었고, 스리랑카 근로자 이야기는 소설적인 재미까지 안겨주었다. 마지막 남은 8편 중 3편을 심사숙고하였는바,

긴 문장이 산만하게 이어지는 단점이 흠이었으나 필리핀 출신 미혼모를 아내로 맞은 마흔 줄의 가난한 장애인인 쓴 「불혹을 넘긴 나이에 얻은 소중한 나의 가족」은 세 아이를 키우며 시련을 이겨낸 사연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한국으로 시집와서 7년 만에 남편과 헤어져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곳곳하게 세파를 겪어내고 대학을 목표로 향학열에 불타는 「나의 꿈과 열정」은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데 다소 미흡했으나, 역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귀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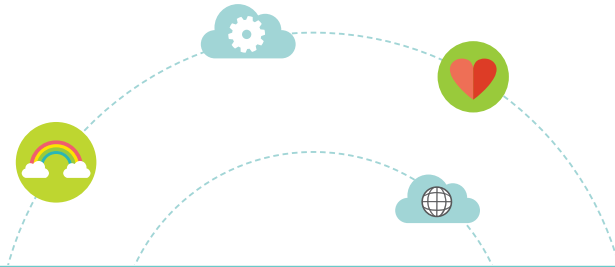
또한 「나는 오늘도 견고 있습니다」는 문장의 다듬기가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시집 온 6년차의 베트남 여성이 단계적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생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으로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한글학습에 매진한 저력과 희망찬 나날을 보내는 자세는 가히 일품이다. 물론 가슴 속에 묻어있는 절절한 사연이, 더욱 세련된 작문의 기술로 표현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우수작품뿐만 아니라 장려상으로 선정된 여타 작품도, 오늘을 사는 한국국민에게 감동을 준 수작이었음을 밝힌다.

CONTENTS

외국인 부문

PART
1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 최우수상	12
흰티투하 • 베트남	
아버지와 젓가락 우수상	17
포포바 엘리자비예따 • 러시아	
네팔에서 나의 꿈 한국에서 키우다 우수상	22
카다얏 타라만 • 네팔	
비 내린 후 갸 장려상	29
응오티검농 • 베트남	
아버님의 손 장려상	34
모리 사나에 • 일본	
현모양처가 꿈인 엠의 행복한 한국 생활 장려상	39
누엔티프엉엠 • 베트남	
나의 유학생활은 공부만이 아니다 장려상	44
양혜 • 중국	
내 인생의 잊을 수 없는 날 장려상	48
이창범 • 중국	



국민 부문

PART 2

나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54
배은하 • 대한민국	
불혹을 넘긴 나이에 얻은 소중한 나의 가족 우수상	59
조경철 • 대한민국	
나의 꿈과 열정 우수상	64
김민경 • 대한민국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장려상	68
구지혜 • 대한민국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것만 알면 OK! 장려상	73
황유진 • 대한민국	
소셜 같은 하루하루 장려상	79
김매화 • 대한민국	
저의 행복으로 나타난 천사들 장려상	83
바두아 로이다 • 대한민국	
따사로운 햇살을 기다리며 장려상	88
박은정 • 대한민국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

PART

1

외국인
부문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



원티투하
(베트남)

최우수상

한국에 온 지 거의 3년이 되었다. 그동안 내 삶을 차지했던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와 언어 차이를 극복해서 이제는 한국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3년 전에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고 사별을 한 후 딸 아이 한 명을 정성으로 키웠다고 했다. 나는 초혼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재혼과 초혼의 만남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만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다.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기사님께서 착해 보이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다. 이야기를 주고받



는 동안 기사님은 “애기 있어요?”라고 물으셨다. “아직요.” 대답을 들으신 기사님은 “빨리 애기를 낳아야지요. 남편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웃으면서 남편에게는 딸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기사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남편 분은 재혼이라고요? 왜 아가씨가 재혼을 했어요?” 큰 소리로 다시 물으셨다. 나는 기사님에게 재혼이라도 좋은 사람이면 괜찮다고 답했다. 그런데 기사님은 무슨 말을 하시면서 계속 혼자 중얼거리셨고 그때부터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하는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편치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매일매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서서히 그 일은 내 머리 속에서 잊혀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한 번 더 타게 되었다. 이번 기사님도 친절한 사람이라서 어쩌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기사님은 남편과 함께 베트남 관광지부터 한국의 날씨, 음식, 영화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남자 분들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야기는 더 오래 가지 못했다. 남편의 재혼을 알게 되신 기사님은 또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왜 남편과 결혼했냐고 나에게 물으셨다. 남편이 무안해할까 봐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끝나고 어색한 기분으로 택시를 내리게 되었다. 이런 기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집 근처,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머리짱 아주머니도 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똑같은 말로 물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괜찮으냐?”고 물으셨다.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 보니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초혼과 재혼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머리짱 아주머니께 물어 보았다. 아주머니께서는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아가씨인데 한 번 결혼의 경험이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보통 한국에서는 혼하지 않은 일이라고 친절하고 답해 주셨다. ‘아, 그렇구나... 결혼에 대해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나를 꼭 안으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여보!” 그 말을 듣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편견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으니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왔다.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물론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남편과 남편의 소중한 딸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적응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은 지금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딸에 대해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10년 전 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 없이 딸을 잘 키워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냈다. 남편이 자기의 모든 사랑과 희망을 딸에게 다 쏟았다. 당연히 남편은 딸의 우상이 되었다. 그런 딸이 참 예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우상인 아빠와 결혼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 걱정도 되었다.

‘나와 남편이 결혼한 것을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 딸이 나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의 보통 엄마와 딸처럼, 팔짱을 끼고 딸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쇼핑도 같이 가고 싶었다.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은데 멀리 사니까 마음만 계속 있을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다. 늘 머릿속에서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갈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걱정과 달리 드디어 우리는 작년 8월에 딸이랑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이라서 초조한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 지, 딸의 눈을 어떻게 쳐다봐야 할 지 정말 난감했다. ‘먼저 가서 안아 줄까? 이름을 불러 줄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딸의 생각도 택시 기사님과 똑같은까?’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딸이 먼저 “엄마...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해 주셨으니 제 엄마예요. 맞지요?”



“엄마....” 이 한 마디 말로 나의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말았다.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받은 나는 “어...고마워... 사랑해....”하며 딸을 가슴에 품고 꼭 안아 주었다. 짧은 5일 동안의 시간이라 아쉬움도 많이 남고 긴 이야기도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일본으로 딸이 돌아간 후부터 우리는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도 서로 보내고 있다. 아직 한국의 엄마와 딸처럼 되려면 아직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매일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던 어느 날, 남편은 딸에게 전화를 한 번 걸어 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순간

“당신이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직접 걸어야지요. 당신 딸이잖아요.”

남편의 놀란 두 눈이 점점 커져갔고, 조금은 서운한 빛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당신도 우리 딸의 엄마예요.”

“아니요. 나는 그 애기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나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 버리다니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말투에는 화가 나 있었다.

남편은 딸이 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늘 엄마라고 부르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 하느냐고 서운한 듯 물었다. 또

“내 딸이니깐 당신 딸이기도 한 거야. 우리는 부부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며칠 동안 남편의 말을 많이 생각하면서 후회했다. 나와 딸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남편,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낳지 않았던 딸을 예쁘게 봐 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사랑을 해 주면 친딸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 딸한테 사랑을 주고 예쁜 말을 해 주면 당연히 좋은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딸이 나에게 엄마라고 하고 그렇게 잘해 주고 있는데 나 역시 더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다.

지난 주 뜻밖의 전화가 왔다.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일본에 꼭 한번 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했다. 그렇게 할까? 우리 부부는 일본에 가 본 적도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딸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거기서 딸을 만나 여행도 하고 더 속 깊은 얘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은 당연히 시간을 내서 꼭 한 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딸이랑 더욱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친딸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나의 꿈이다. 마음으로 자식을 낳아 입양도 하는 마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딸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이 아닌가?

이 세상의 그 어느 모녀보다 더 뜨겁게, 깊게 사랑하고 싶다. 딸아 사랑해~~~~.

아버지와 젓가락



포포바 엘리자비에다
(러시아)

우수상

얼마 전 보수적인 러시아 사람인 친정아버지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러시아에서 결혼식을 먼저 올린 후, 한국에서 다시 하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여행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산지 거의 10개월이 되어서 한국이란 나라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이상하고 낯설었던,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던 까닭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일흔이 다 되시도록 오직 러시아에서만 사셔서 고향의 모든 것에만 익숙하신 너무나 보수적인 아버지에게 한국은 불편한 곳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잊을 수 없는 한국에서 아버지와와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랑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버지께 식사를 만들어 드려서 누구보다 저는 아버지의 음식습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 농촌에서 태어나신 아버지는 간단한 전통 러시아 음식만 좋아하시고 지금까지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국에 조금만 새로운 재료를 넣어도 이는 곧 아버지는 안 드시고 저 혼자만 먹겠다는 뜻일 정도니까요. 또한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반드시 러시아 음식과 보드카를 가져가시곤 합니다.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독특한 향이 있는 음식은 아버지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여행의 첫째 날에도 집에서 가지고 가신 비상용 러시아 음식을 꺼내어 드시곤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아버지의 가방 안에서는 우리에게 줄 선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여행에서 여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위와 권위를 가진 물건, 보드카와 소시지 그리고 전통 러시아 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신 날, 시부모님이 준비하신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한국 빵을 조금 집어 들어 드신 후에 젓가락을 드시더니 오래 집고 있지를 못하셔서 저처럼 포크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포크를 받으신 다음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놀라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포크를 능숙하게 사용하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 시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살뜰하게 준비하셨던 밥과 반찬 국 같은 음식들은 마치 식탁위에서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시부모님은 아버지 앞의 완전히 깨끗한 그릇을 보며 손뼉을 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한국음식을 좋아하셨어!’

평소에 아버지는 예의를 아주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저는, 저녁밥을 먹은 후에 다른 방에서 조용히 몰래 아버지를 불러 여쭙어 봤습니다. 우리 고향과는 그렇게도 많이 다른 한국음식이 정말 마음에 드신 건지 아니면 소중한 사돈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후하게 대접하시는 사돈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맛있게 드신 척 하신건지 여쭙 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방금 먹었던 한국음식이 정말 입에 잘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가족은 삼겹살집에 같이 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를 이 식당에 데리고 가셨었는데 싱겁고 단백한 맛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제 입맛에 여러 가지 고소한 소스가 맞지 않아서 당시 가방 속에 가져왔던 복숭아와 빵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빵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두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고기와 신선한 깻잎과 상추와 같은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궁합에 잘 맞으신다며 이 식당에서도 역시 마치 한국 삼겹살의 광고를 찍으시는 듯 맛있게 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무사히 행복하게 지낸 우리는 설악산에 여행을 갔습니다. 등산 후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파는 파전과 막걸리를 사서 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편하게 마시면서 시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곳의 포장마차에서는 포크가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젓가락으로 막걸리와 아주 잘 어울린다는 전을 서툴고 느리지만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젓가락을 사용하시고 마치 뭔가 새로운 감각을 찾으신 듯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한국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면 젓가락이 미끄럽고 가늘어서 손에 쥐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일 식사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어 더욱 건강하게 되며 또한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예쁜 의식으로 변화 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쇠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쇠로된 젓가락은 가늘고 무거워서 나무로 만든 젓가락보다 더욱 많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하고 경건한 습관인,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를 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러한 문화 습관이 좋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젓가락질 잘 못해도 밥 잘 먹어요.’라는 한국 유행가도 젓가락질 문화를 구세대의 유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많은 어른들은 젓가락질을 아주 중요한 문화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식의 젓가락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도 젓가락질을 할 줄 모르는 러시아 아버지로부터 젓가락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점점, 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제 어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내 조국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탓인지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미 벌써 일 년 동안 한국에서 지냈지만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지혜롭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보수적이라고 믿었던 제 아버지께서 저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깨달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가족여행이 저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한 행사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사의 다음 코스는 속초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때 동해에 놀러온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 날은 일반적인 맑은 가을 날 중 하루였을 텐데 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던 것을 새롭게 생각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하고 바다를 품은 건강한 공기를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거의 모든 방향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바다까지 가려면 몇 천 킬로미터를 지나야 하거나 다른 나라로 가야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일 년에 한두 번 바다가 있는 곳에 잠시 지내면서 바다의 공기를 마시면 앞

으로 일 년 동안은 반드시 감기나 알레르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러시아 사람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을 아끼지 않고 바다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건강한 공기가 있는 바다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천천히 깊은 숨을 쉬고 매 한 모금 한 모금마다 즐기는 기분으로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공기를 매일 마시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만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사우나도 하시고, 강화도 여행도 하시고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실 날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인삼, 인삼술, 인삼 가루, 인삼음료, 인삼캔디, 인삼 화장품 같은 여러 상품도 사시고,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한국 특유의 공기와 한국의 신선한 바다 바람, 젓가락으로 먹는 습관, 궁합에 맞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들, 찜질방의 더운 열기, 한국 논에서 자라는 쌀도 갖고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도 한국에서 받은 ‘건강’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내 딸이 이런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안심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셔도 못 빼시던 몸무게를 2kg이나 빼시고 안색도 좋아하시고, 당시 혈압도 괜찮으셔서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제가 사는 곳에 잠시 들르셔서 바쁘게 생활하며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던 저에게 많은 것을 밝혀주시고, 많은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사는 이곳과 이 순간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바쁜 생활와중에도 잠시 멈춰 서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맛있는 공기이고, 이 얼마나 흥미롭고 보람된 삶이며, 이 얼마나 소중한 것가라질이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네팔에서 나의 꿈 한국에서 키우다



카다얏타라만
(네팔)

우수상

제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저는 네팔에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8살일 때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께서 저를 보살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저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중학생 때까지 2시간동안 통학을 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잘 키우고 공부시켜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집에서 소를 키워서 우유를 파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제 가족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시키기 보다는 다른 일을 시켰는데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업에 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제 마을에서는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집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



냈습니다. 제 마을에는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커서 성공하면 제 마을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제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도 조금 적은 편이었고 자신감도 적었는데 반해 다른 아이들은 집안이 좋아서 좀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교수님께서 저한테 한국에서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지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꿈을 키우고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우고 얻은 경험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2010년 8월 27일, 1년간의 한국 정부 초청학생으로서의 한국어 어학연수와 2년간의 약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 전에 저의 네팔친구들, 선배들과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지 마,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별로야. 너는 똑똑한 학생인데 왜 한국에 공부하러 가? 한국은 공부하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일하러 가는 나라야. 타라만, 너는 1년 간 허송세월을 보낼거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항상 “타라만,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거야.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는 마. 한국정부가 너를 초대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음식이 제 입맛에 잘 맞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नेपाल에 다시 돌아갈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이 유학 온 인도, नेपाल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한국어를 통해서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에 नेपाल어와 नेपाल 문화 등에 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 알리미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नेपाल에서 24년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नेपाल에서 관광지를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뒤 1년간 수많은 관광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많은 것을 본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नेपाल에서 16년동안 정식교육을 받을 때에는 올바른 예의와 성실함, 그리고 솔직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한국에 온 뒤 한국시스템과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전된 국가, 문명화된 사회가 무엇인지, 현대인들이 과학 덕분에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नेपाल에서는 듣기만 했으나,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강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해 준 가장 큰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태극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국기가 걸려

진 것, 또한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환영하는 것에 감동 받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한국 정부 초청학생의(KGSP)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 네팔 전통 옷을 입고 있을 때, KGSP / NIIED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나마스태’라고 저에게 인사하면서 멋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대구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특별한 모양(비 사변형 국기)의 네팔국기를 대표자로서 들고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제7회 대한 약학회 약품화학분과 학회 워크샵에 가서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의 수업을 듣거나 사진을 찍고, 약물 발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식사할 때에는 “나도 저들처럼 더 잘 할 수 있을거야. 나도 나중에 유명한 연구원이 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그날 저녁에는 매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탤런트 쇼’에서 영남대학교 대표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를 때 교수님들이 “우와 ! 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후 네팔전통노래를 부를 때 처음 5분 정도는 다들 박수를 치시다가 갑자기 한 교수님께서 “OK !, ‘STOP’... ‘STOP’...”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고 황당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서 선배들에게 왜 그 교수님이 그러셨는지 물어봤더니, 저의 네팔노래는 너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한 상황이 부끄러웠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사람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대구 영화 촬영장에 가서 단편영화를 찍을 때,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닭갈비를 안주로 소맥으로 건배를 외치며 한 잔 했던 기억,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는 네팔 춤으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추억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고, 추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을 방문하러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서울의 동대문 시장,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을 구경하고 N서울타워 꼭대기에 간 후, 밤에는 찜질방에서 잔 것은 한국에서의 새로

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의 결혼식에 가서 음식을 너무 배불리 먹어 1시간동안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어교육원에서 공부했던 시절, 선생님이 노력하셨던 인생 스토리와 선생님만의 재미있는 교육방식을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였고, 그 내용을 네팔 책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선생님 지원자로서 초등학생들에게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불구가 된 아이의 집에 가서 도와주었을 때,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가끔 주말에는 대학교 축구장 가서 축구도 하고, 여자친구랑 배드민턴을 치거나 헬스장에서 한국 친구들과 친하게 운동한 것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어교육원을 다니던 1년 동안 공식적인 대학원생은 아니었지만, 한국어 수업 외에 틈 날 때 마다 연구실에 들어서 선배들이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 교수님과 같이 고기집에서 삼겹살과 맥주를 먹으며 친해질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 2011년 여름에 한국에서 ‘독도 알리기’ 라는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도 알리기 캠페인에 해외 진행요원으로서 한국에 온 유학생 100명을 뽑았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독도행 배를 타고 99명의 친구들과 3일간 울릉도, 독도 자연생태탐방을 통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하여 왜 한국이 독도를 중요시 여기고 독도가 무슨 섬인지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도 알리기 캠페인 두 번째 날 장기자랑에서 한국어교육원 친구와 사랑에 빠진 시를 낭독한 후 받았던 울릉도 오징어 10마리를 친구들과 맥주와 함께 먹었던 순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생태탐방이 끝난 후, ‘독도 사랑합니다’라는 시를 한국어로 쓴 것에 대해 포항공과대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칭찬하시며 자켓을 선물해 주셨고 “타라만, 한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네팔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뿐만 아니라 네팔의 발전에 기여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항상 생각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에 대한 제 생각을 제가 쓴 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독도 사랑합니다_타라만 카다얏

한국의 울릉도 한국의 독도
당신들을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독도 아름다운 독도
이제 당신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독도 당신은 나의 마음을 알았고
당신은 나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독도 나는 당신을 만나러 왔고
당신은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사랑했습니다
누구도 좋아할 수 있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줄 겁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독도 당신이 더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독도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한국의 독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4년간의 한국어교육원 생활에서 배운 것과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앞으로 저를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말했던 친구들에게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지금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저는 네팔에서 꾸었던 나의 꿈을 한국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학생들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가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네팔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의 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처럼 제가 훌륭한 리더가 되어 네팔의 발전을 이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내린 후 갬



응오티검농
(베트남)

장려상

자기 비가 오고 금방 그치는 게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국에 온지 6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번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를 통해 저의 사연을 털어 놓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년 전 남편 하나 믿고 저는 낯선 땅에 따라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물 넷 아가씨는 두 아이 엄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산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쉬지 않습니다. 힘들 때 아이들을 보고 힘을 내면서 하나, 하나씩 넘겨가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제일 힘들 시기는 작년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술을 워낙 많이 좋아해서 거의 매일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눕니다. 애도 둘인데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간단한 대답



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힘들어서 그만 두는데 왜 다들 뭐라고 하나?”, “그만두는 건 내 마음이야!”, “내가 일을 아예 안 한 대?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일 알아보면 되잖아! 막 말로 니가 일 그만두면 내가 옆에서 너한테 왜 그만 두었냐고 다투면 너는 좋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 일 억지로 하니까 내가 일을 그만두지”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사실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했던 것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이면 당연히 식구들 먹여 살리고 일을 해야 하는 게 필수이건만 어떻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생활에 시달리니 이혼 생각도 납니다. 남편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말도 자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애들은 잘 낳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학원비를 국가가 지원해주었지만 특강수업에 참석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일을 좀 하라고 부탁했는데도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별지만 한 푼이라도 벌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랴 일을 하랴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밖에 가면 말도 안 통하는데다가 생김새도 달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무지 들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가면 고향에 계시는 엄마와 아빠, 친척들에게 어떻게 이야기 하나, 그리고 이웃들을 만났을 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심을 내리고 참고 살고자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들은 상상도 못 합니다.

설상가상인가요? 이제 큰 애는 3살, 작은 애는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탓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치료비를 당장 내야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주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친정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건 없었지만 엄마가 한국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엄마가 계셔도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너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느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마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이라 일을 익숙하게 하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옆에 계신 이모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아 처음에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야. 하다보면 잘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모가 천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이모와 친해졌고 쉬는 시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꼭 나눠서 먹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모와 같이 얘기하고 조언도 구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모가 시골에 갔다 오시면 저에게 챙겨주시는 것이 옥수수나 감자였는데, 이것들을 먹으면 차갑기만 했던 저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는 듯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이모님과 요즘은 연락을 하지 못하지만 그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좌절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항상 투박한 손이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저의 손을 꼭 잡고 쓰다듬어 주셨던 이모님의 손길이 그리웁습니다. 그 시절, 이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국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힘들었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말

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행운처럼 다가온 이모님과 같은 고마운 분들로 인해서 저의 삶은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에게 열정과 따뜻함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혹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는 복지사님과 상담사님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 때가 많지만 잘 넘기면 저절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철이 오면 말라버리고 봄이 오면 새순이 돋듯이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거 같습니다. 힘들 일을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문제를 겪었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극복하고 강한 의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잘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어떻게 감사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온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들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저의 앞으로 계획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미용사가 된다면 불우 이웃인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분께 머리를 잘라드리고 싶고 조금이나마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은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술을 줄이고 회사에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서 건강하게 열심히 힘을 합쳐 살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그러고보니 우리 아이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단원고등학교 옆에 삽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기 전, 저는 이 학교 학생들이 재잘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우리 아이들을 깨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내심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텅빈 운

동장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아이들이 전과 같이 재잘거리며 떠드는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2014년, 한국에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세. 월. 호. 이 세 글자를 말하면 눈물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유가족들이 소리를 외치거나 쓰러질 때 한 동에 사는 저는 그 아픔을 공감합니다. 올해 4월 16일, 이제 1년이 됐습니다. 4월 9일에 저는 세월호 아이들이 생전에 썼던 방과 물건들을 전시사진을 보고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남겨 놓은 유품을 보고 학부모가 팽목함에서 쓰셨던 이불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유가족분들 그 아픔을 빨리 극복하고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일반 가족이나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2015년 봄철처럼 꽃처럼 만발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도 이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주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힘들면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되어주는 다문화센터를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로 떠나간 아이들을 위해 살아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나라 한국에 와서 서툰 한국어로 살아가는 아줌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내리는 비보다 더 세찬 비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비도 언젠가 그치기 마련이니까요.

아버님의 손



모리 사나에
(일본)

장려상

“할아버지 왼손은 왜 단단해?”

“할아버지 왼손은 왜 안 움직여?”

5살 아들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국 사람인 남편과 아들이 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작년 3월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온 처음 아들은 한국말을 못해서 울면서 어린이집에 갔다.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 그리고 예쁘고 착한 친구들 덕분에 순식간에 한국말이 늘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한국말로 이야기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은 것이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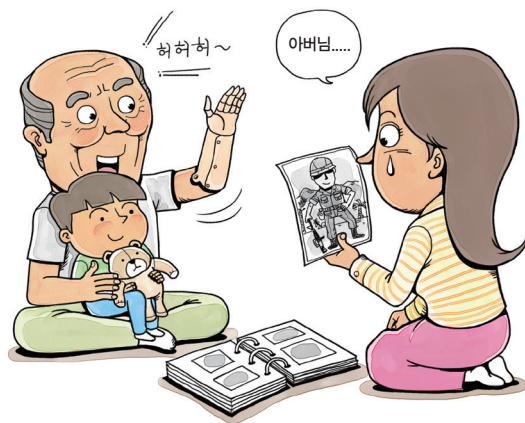
“할아버지 왼손은 왜 단단해?”

“할아버지 왼손은 왜 안 움직여?”이었다.

아무것이나 순수하게 알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 질문하는 나이가 된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이다.

“할아버지는 손이 아파.”

“할아버지, 손 아야했어?”



“그래.”

시아버님께서는 왼손이 의수입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때 총탄으로 왼팔을 잃으셨다. 스무 살 때이었다.

아버님께서 한 장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셨다. 베트남 전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의 청년은 큰 나무 밑에서 용감하게 서있었다. 한쪽 손을 총탄으로 잃기 전의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아버님의 양손이 확실히 있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한쪽 손을 잃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 용감한 청년 모습을 보니 나는 가슴이 아팠다. 앨범에는 같은 사진이 몇 장이나 있었다. 그 외에도 양손이 있는 아버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나왔다. 당초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양손이 있는 아버님의 사진을 많이 주셨단다. 그 전우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내 가슴도 뜨거워졌다.

전지에서 한국에 돌아오신 아버님께서는 교사가 되고 교단에 서셨다. 9명 형제 장남이신 아버님께서는 동생이 많다. 그 동생 중 한 분이 학생 때 형인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단다. 그 작은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여름 더운 날에도 의수 기구를 달아서 긴 소매 셔츠를 입고 팜투성이가 되면서도 열심히 가르쳐 주는 형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뻔했었다. 보기 힘들었다.”고.

작은아버지께서는 직무를 완수하는 선생님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형을 걱정했을 것이다.

한국에 와서 아버님 친척들을 보는 기회가 늘고 나는 여러 경험담이나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 산다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남편 가족이나 친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게 됐다. 아버님 손 역사도 그렇다.

내가 아버님을 만난 것은 결혼 전 처음으로 인사하러 한국에 왔을 때이다.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공항에서 나를 마중해 주셨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잘 왔어. 기념으로 사진 찍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공항을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다. 지금은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전혀 못했다. 긴장으로 굳어진 나는 사진을 찍는 순간에 단숨에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환영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다. 한국말을 못하는 나에게 아버님께서는 종이에다가 한자를 많이 써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다정한 아버님을 아주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좋아하는 아버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그때부터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조금씩이지만 한국말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기뻐다.

한국에 와서는 주말이나 명절 때 시댁에 놀러 가거나 부모님께서 놀러 오시거나 하면서 만난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아주 좋아해서 언제나 머리 위에 올라타고 무릎 위에 앉아서 논다. 아버님께서는 손자를 아주 예뻐해 주신다. 그 모습을 보면 내 남편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놀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니 흐뭇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 자기 예쁜 아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서 놀아 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아버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차오른다.

남편은 손재주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없다. 무엇인가 만들기와 고장난 것을 수리하기를 참으로 요령 있게 잘 한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손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도와서, 남편이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집도 지으셨다. 모두 자기들 손으로 지었다고 들었다. 그때 아버님과 남편은 함께 협력하면서 지었다. 몸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어떤 일이든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아버님, 근육이 불거진 오른 팔로 모든 것을 요령 있게 해내시는 아버님. 그런 아버지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도와 드려온 남편. 남편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을까.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일이든 도전하고 언제나 열심히 하려는 강한 마음, 불편한 분들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따뜻한 마음. 그 배움은 내 상상보다 훨씬 큰 것일 것이다. 내 아들도 할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한국에 와서 시부모님과 식사할 기회가 늘었다. 함께 식사할 때 어머님께서는 우선 아버님께서 드시기 쉽게 아버님 오른손 셔츠 소매를 걷어 주시고, 상추에 고기와 김치와 마늘을 써서 오른손에 주신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도 어머님께서는 당연한 일인 듯이 아버님께서 드시기 쉽게 신경을 써 주신다. 나는 그런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을 이렇게 도와 드리면 좋구나, 이런 배려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을 알고 부터 함께 식사 할 때는 나도 고기를 상추에 써서 아버님께 드리게 됐다. 지금 5살 아들이 조금 더 크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남편, 나, 아들 우리는 다 아버님 어머님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울 것이다.

또한 아버님의 손을 빼앗은 전쟁이 많다. 전쟁을 생각할 때 전쟁으로 인해서 상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 부상을 입은 분들은 전쟁이 없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일도 없었고 상할 일도 없었을 터이다. 자신 인생을, 가족 인생을 바꾸고 마는 전쟁이란 정말로 잘못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상해왔다. 남녀, 어른과 아이, 구별 없다. 태어난 새로운 목숨조차도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모두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전쟁이다. 나는 한국에 와서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전쟁이란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민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도 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슬프다. 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상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세계 모든 사람이 가족과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부모님, 가족, 친척,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딸 두명, 아들 한명을 훌륭하게 길러 내신 아버님. 양손 이상의 일을 해온 아버님의 오른손. 나는 그 오른손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아버님과 그 소중한 오른손에게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다. 양손 이상의 고생을 해온 그 손에게 이제부터 많은 행복을 잡게 해 드리고 싶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손을 씻어 드리고 내가 상추에 맛있는 것을 써서 드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나, 아들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님의 손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아낄 것이다.

현모양처가 꿈인 엠의 행복한 한국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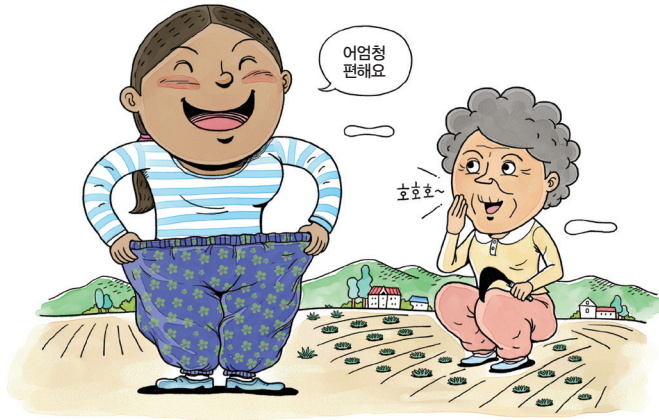


누엔티프엠
(베트남)

장려상

제 이름은 ‘응웬티프엠’입니다. 제 이름이 너무 길어 사람들은 ‘엠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장사도 돕고 옷 수선 일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2012년 8월 9일 현재의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7개월 후인 2013년 3월 2일에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마음과 눈빛이 따뜻한 모습에 반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한국어가 전혀 안 되니까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껀터’에서 30~4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저희 집에서 껀터를 걸쳐 호치민까지 5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호치민에는 통역을 하는 언니들이 많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힘든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웬티프



어엿입니다” 하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 설은 한국인과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어와 문화 풍습 등을 센터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국제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좋았지만 부모님을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로 시집 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한국어로 시집을 간 친척동생들에게서 한국 결혼생활의 좋은 점과 높은 교육문화, 발달된 의료시설 등 베트남과 다른 편리한 생활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좋은 점들은 많이 들으니까 한국인과 결혼을 하기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연이 닿아 현재 남편을 만나서 호치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어로 입국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면서 열심히 한국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능력시험도 합격하고 부모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전만 해도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 일이 취미라서 한국에 오기 전에 ‘현모양처’가 되어 남편과 함께 부모님

을 모시고 잘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익숙하지 않는 한국문화, 그리고 이해 못 하는 한국어, 시부모님과과의 어려운 의사소통으로 인해 베트남 집에 계시는 부모님의 생각이 자주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령의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한국드라마에서 보던 풍경과 한국 사람의 생김새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표준어로 한국어를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사투리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혹시 ‘저분 가져오나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젓가락 가져오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1달이 걸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온지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를 도와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아야 되는데 숟가락을 엮어 놓고 젓가락도 짝이 안 맞는 것을 놓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친절하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트남은 더운 지역이라서 젊은 여자들은 끈나시 옷을 자주 입고, 발가락을 끼우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한국의 여름도 많이 더워 베트남에서 가져온 끈나시를 입고 샌들을 신고 외출을 하려고 하다가 동네 어른들께서 ‘젓통 다 보이겠다이, 애구이 동네 마실 나가나’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그 말이 뭐냐고 여쭙보고 가슴이 다 보일 정도로 옷이 야해서 어른들이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다른 어른들께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더워도 팔이 있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고 외출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 집에서 필요한 야채는 거기에서 가져와서 먹는데 하루는 어머니를 도와 텃밭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발가락 샌들을 신고 청바지를 입고 나온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그렇게 입고 일하면 불편하고 신발은 발가락을 물어 다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복(사람들은 뽀빠바지라고 부릅니다)바지를 주시면서 이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부분에 고무줄이 있

어 잘 늘어날 것 같고 화려한 꽃무늬가 있었지만 입어보니까 싫지 않았습니다. 편안해서 이제는 집안일을 할 때도 어머니께 빌려 입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이제 외출할 때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외출합니다.

한국 문화 중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아침 식사’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도 많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죽이나 국수와 같은 간단하게 먹는 문화입니다. 대신 점심과 저녁은 잘 차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당연하게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잘 화를 내시지 않는데 남편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에고, 그거 먹고 힘이 나겠나?’하시면서 언짢아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루종일 그게 마음에 걸려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고, 한국은 아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을 잘 먹어야 ‘밥심’으로 하루종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꼭 하얀 쌀밥이나 잠곡밥을 새로 지어 남편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직 적응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차가 베트남보다 한국이 2시간 더 빠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직 조금 힘들습니다. 언젠가 되면 어머니처럼 알람시계의 도움없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른 부분은 하나하나 배워 나갔고, 언어도 2년이 지나니까 언어 소통에는 별문제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져서 비록 한국 생활이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10년 이상 산 사람처럼 한국 아줌마가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나물 무치는 방법,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을 끓이는 방법도 배웠고, 이제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된장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저도 모르게 파전이 먹고 싶어 “어머니, 파전 드실래요?” 여쭙고 어머니랑 같이 파전과 신 김치로 부친 김치전을 먹는데 저는 술이 약해서 음료수를 마시고 비오는 날

에는 ‘파전에 동동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동주를 드십니다. 저희는 궁합이 잘 맞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간이 맞지 않거나 재료가 부족하면 어머니께 간 좀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친절하게 뭐가 부족한지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툰 솜씨지만 설날 때 어머니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한국에 와서 2년이 됐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하고 썼는데 어머니께서는 ‘잘 썼네’라고 말씀하시면서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좋아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사투리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라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서 이제는 사투리를 조금씩 이해가 되어서 가끔씩 남편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보, 오늘도 힘썼어요”하고 말합니다. ‘힘썼다’는 경상도 사투리로 ‘고생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으면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남편과 실수를 해도 친절하게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원하던 ‘현모양처’가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 빨리 2세를 낳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과 다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신 할머니께서 제 꿈에 나와 저에게 아기보따리를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예뻐해주시는 시부모님이랑 남편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애기를 가져 시부모님에게 손자를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나의 유학생일은 공부만이 아니다



양혜
(중국)
장려상

저의 어머니가 교포여서 한국이란 나라가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부터 저에게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춘기에 들어설 무렵인 저는 그 때 어머니가 한국어를 저한테 배워주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고 굳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경으로 대학을 가고 모 한국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한중 통번역이 엄청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 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의 마인드로 본 중국,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역사는 어떠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한국에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한 학과는 중어중문학과였습니다. 다들 한국에 와서는 국어국문학과를 택하는데 중국인이 중어중문학과를 택하는 것에 주위에 사람들은 모두 돈 버리는 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들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되려면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학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중국인인 저는 한국의 시각에서 중어중문학과를 배우고 이에 중국인만의 개성과 사상을 투영하면 또 다른 창의적인 교직내용이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중어중문학과는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인의 눈으로 보는 중어중문학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 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름 한국어에 자부심이 있던 저는 개강하여 쓴 맛을 보았습니다. 시험은 서술형이고 팀플과 과제에 저는 유학을 오기전의 자신심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의 강의마다 녹음을 하고 과제는 같은 수업을 듣는 벗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물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물었더니 벗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고 조언까지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게 저는 친구를 사귀면서 유학생생활에 하루하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취감도 잠시 매번 기숙사를 혼자 오르락내리락할 때 외로움은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기숙사 조교와의 만남을 통하여 여자축구 동아리 결성방안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회이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도 동참해도 되겠냐고 말했더니 엄청 좋아하

시면서 하이파이브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스터를 작성하고 6년 넘게 축구를 한 조교님을 코치로 선정하고 신입부원을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조교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신입부원모집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포스터에 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멘트를 쓰고 또 썼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멘트는 바로 “발만 가져오면 되여~”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모았습니다. 기숙사생들이 대부분 14학번 새내기여서 저보다 다들 3,4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14학번 친구들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더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팀원들은 14학번답게 저한테 줄임말도 많이 알려 주고 요즘 핫한 연예인 그리고 신입아이들도 알려준 정보를 저와 같은 학번의 친구들한테 알려주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번 친구들이 “넌 외국인인데 왜 나보다 그런 걸 더 잘 알아!”하면서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축구연습 뿐 만 아니라 평소 아침도 기숙사 식당에서 같이 먹고 저녁에는 야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혹은 피자를 시켜먹곤 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비록 축구로 인연은 시작되었지만 이제 팀원도 저도 마치 자매처럼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회 준비를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주 2회로 늘리면서 찰떡처럼 같이 다녔습니다. 팀원들이 다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어서 저는 서울말보다 지금 사투리를 더 잘합니다. 어는 한 지역의 사투리가 아닌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다 섞어서 쓰다 보니 저를 처음 본 친구들은 제가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물어 보면 제가 외국인이라고 답하면 물어본 친구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축구동아리가 정말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구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겁도 없이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하는 동아리 중에는 길어서 6,7년 쌓아온 커리어가 있었고 짧아서는 1년 정도 되는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개월 축구 연습한 우리는 바로 “신생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4학번의 패기와 저 외국인 주장의 무모한 도전이 뭉쳐서 대회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한테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트로피와 우승이 아닌 바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릴 적부터 “패배를 맛보아야 만이 그 성공과 승리가 얼마나 값지고 달콤한지를 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다지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팀들 눈에는 무모한 도전,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 팀원들이 처음으로 정식적인 경기를 하였고 또 처음으로 경기장 밖에서 아닌 경기장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무사히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처음으로 한 팀의 주장으로 한 팀의 공격수로 한 팀의 만년니로 경기를 뛰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패배로 돌아왔지만 “너 아까 그 패스 정말 멋졌어.”, “언니, 슛팅 잘했는데 골 못 넣어서 너무 아쉽다.” 서로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경기의 승리를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틈만 나면 번개로 축구게임을 하였고 기숙사에서는 너도 나도 부러워하는 동아리로 승급하였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5개월 후 우리는 또 다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5위라는 성적을 거두어내면서 주위 축구동아리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빠는 여자가 된 축구냐며 말하면서도 제가 축구할 때 제일 행복하고 예전보다 더 밝은 유학생활동을 하는 것을 보자 아빠는 더 이상은 축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축구에 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주면서 조언을 하곤 합니다. 축구를 통하여 서먹서먹했던 아빠와 저의 관계도 조금이나마 좋아진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유학생활동 중 비록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축구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고 동아리의 팀원들과 같이 있어서 이전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축구동아리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밖에 몰랐던 제가 주위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챙기게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앞서기 급했던 제가 팀원들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주게 되었고 무책임했던 제가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잊을 수 없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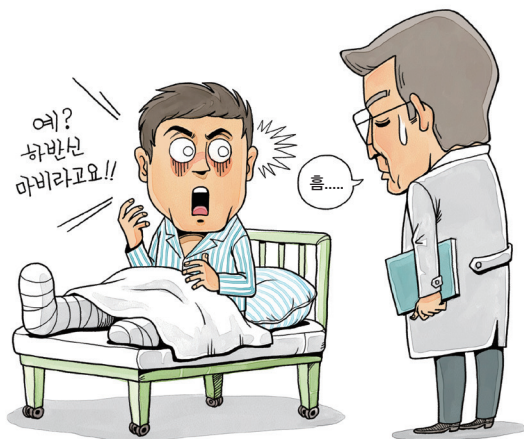


이창범
(중국)
장려상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쯤은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을 고향에 남겨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2006년 3월 6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에서 돈도 없고 나의 가족의 꿈도 펼쳐보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나의 가슴은 쿵쥔거리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했지만 차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다. 3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면접시험도 보고 건설회사에 취직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1년 쯤 지나자 한국 생활은 훨씬 수월해 졌다. 우리 가족의 꿈이 실현될 날을 그리며 힘든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나는 주로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했다.

2007년 여름 어느 날 내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날도 4층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이다. 4층에서 맨 바닥으로 떨어



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후 나는 정신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한다. 3일 동안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척 추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했다.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는 사태의 심각함을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일반 병실로 옮겨져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기억하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하반신 마비라고 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희망이 산산 조각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 졌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잊고 싶었다. 석 달이 지나자 대학병원에서는 나 같은 환자는 더 이상 그곳에 입원해 있을 수 없으니 재활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나는 절망에 늪에 빠져 매일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까지 와서 결국 3개월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깨어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깐 잠이 오는 진정제를 많이 처방하셨는지 치료받는 동안 참 많이도 잤다. 석 달의 정신과 치료를 마친 후에도 나는 종종 자살충동을 느꼈다. 나는 병원 앞 육교를 바라보며

‘저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휠체어를 밀고가 그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내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시하면서 관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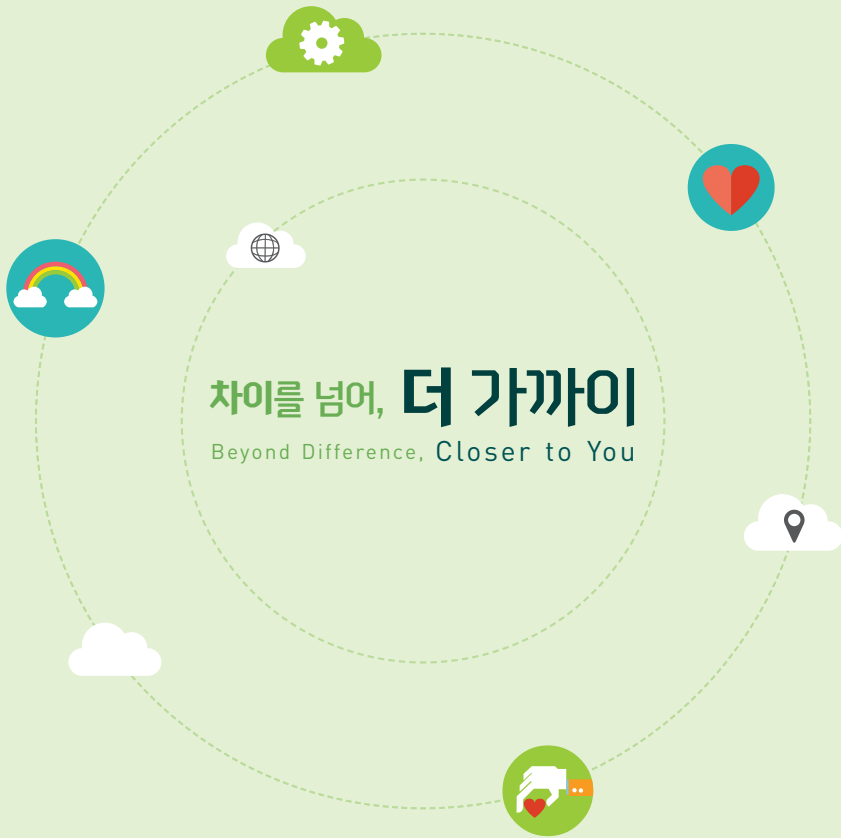
‘특별관리대상 환자 이창범’이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며 방황하던 그 때 한 줄기 빛처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심리학과 과장님께서 나를 상담해 주시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산재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며 용기를 가지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은 다시 의미를 찾게 되었다. 비록 하반신은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내게 다시 꿈이 생긴 것이다. 꿈이 생기자 즐거운 마음으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나의 간호를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작년 여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사귀 친구들로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산재병원에서 함께 재활 치료를 받고 있던 친구들 세 명과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찾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센터 대표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경청해 주시며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보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센터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휠체어가 드나들기 쉬운 곳으로 교실도 배정해 주시고 우리가 병원 치료가 없는 날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조정해 주시는 등 많은 편의를 봐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수업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요즘도 매일 아침 일찍 휠체어 바퀴를 힘 있게 밀며 집을 나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이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한국어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하반신 마비인 우리에게 4~5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리가 절여오고 통증이 몰려오는 때도 있다. 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지난겨울 결국 공부를 포기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들에게 한국어 선생님은 ‘우리반 모범생들’이라고 불러 주시며 아낌없이 응원을 해 주신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4~5시간의 한국어 공부시간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함께라서 좋다. 사고를 당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손을 내밀며 준 그들과 함께 라서 좋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도와준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둠 속에 잠겨있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분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이제는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금 세상 앞에 설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

PART

2

국민
부문

나는 오늘도 걸고 있습니다

PART
2

배은하
(대한민국)

최우수상

안녕하세요! 2010년에 베트남에서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시집 온 배은하입니다.

저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남자랑 결혼했고, 어느새 한국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란 기간은 저를 많이 성장하게 했고, 많은 경험과 생각, 추억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수없이 많이 좌절했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과연 내가 이 자본주의 한국사회에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수없이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한국생활은 시작부터가 저에게 큰 도전이었고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생각했던 것과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달랐고 한국에 대해서 문화나 풍습, 언어 등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남편에게 제대로 표현할 할 수 없어서 울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외로운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눈물만 흘리며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속상할까봐 친정집에 전화를 할 때는 행복한 것처럼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몸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국이 내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용기를 내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다문화가정센터를 찾아가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한국 문화, 풍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열심히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다보니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한국말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도 조금씩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생활이 점차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씩 적응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3살이 되자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한국어 공부했던 다문화가정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다 컴퓨터로 처리해야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컴퓨터를 배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말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소통만 가능한 정도라 사무실 업무에 필요한 한국말도 배우랴, 컴퓨터까지 배우려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사

무직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컴퓨터 기초부터 공부했습니다.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타자연습부터 시작해 문서작성까지 틈틈이 하다 보니 나중엔 타자속도도 빨라지고 문서작성도 제법 잘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보니 ITQ 국가공인시험에서 당당히 자격증을 네 개나 딸 수 있었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은 법무부에서 주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인데 지금 3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른 센터의 담당선생님은 모두 다 한국분인데 저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친구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다보니까 이제는 이 일도 익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에게 왜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이해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한국사회와 문화도 이해할 수 있다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내가 하는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매달 한 번씩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청소도 해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발도 씻겨 드리고, 맛사지도 해드리고, 미숙하지만 그 동안에 센터에서 배운 난타와 밴드, 노래 실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을 베트남에 계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베트남에서는 못 해본 이런 봉사를 다녀올 때마다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문화센터가 있었기 때문이고, 센터장님을 비롯해 사무처장님, 한국어선생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센터가 많이 발전하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람처럼 아주 능숙하지는 않지만, 항상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또한 센터에 일하다보면 다양한 배움의 기회도 얻게 되고, 여러 나라 친구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베트남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베트남 친구들이 나에게 통역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남편과 의사소통 때문에 통역을 부탁하고, 친구들이 센터에 올 수 없을 때는 전화로 통역 도움을 원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다른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로 도와달라고 하면 내 마음의 최선을 다하여 도우려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서로 웃음으로 이야기가 끝날 때도 많지만, 같이 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겪는 친구를 보면 같이 아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한 계단씩 극복하면 꼭 좋은 날과 행복한 날이 우리한테 찾아 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려고 왔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고 함께 다짐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언제든지 크게 속 시원하게 우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있다, 살고 싶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울 때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을 떠야합니다. 감은 눈으로 힘들었던 과거는 묻어두고, 뜨고 있는 눈으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 6년차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여 한국어토픽시험 자격증 4급 땀고, 컴퓨터, 운전면허증 취득, 문화관광통역사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관광통역사 교육에서 배운 실력으로 가끔 베트남 손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유명 관광지를 안내해드리고 유명한 음식도 소개해드렸을 때 그 분들이 저에게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 같다고 해서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5년 전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던 제가 지금은 단계적으로 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을 잘 잡아 배움의

기쁨, 일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등을 알게 되어 크나큰 행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제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엄마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기쁨이 또 나에게 왔습니다. 의사에게서 임신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출산 예정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둘째 딸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행복한 미래를 향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내 목표, 꿈,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시험도 보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관광가이드 자격증에도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딸들에게 두 나라를 가슴에 품은 꿈 많은 아이들로 자라게 해서 베트남과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제결혼을 한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 걸보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확신합니다. 항상 제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든든한 기둥이자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남편과 딸,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모든 결혼이주여성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펼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악조건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모두 한데 담아 싹싹 비비고 숙성시켜 더 높게 더 멀리 더 멋지게 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희망을 품고 훨훨 날아보세요. 기회는 항상 준비되는 자에게 다가오는 법이고,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행복은 또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우리 함께 손잡고 오늘도 나는 걷고 싶습니다.

불혹을 넘긴 나이에 얻은 소중한 나의 가족



조경철
(대한민국)

우수상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사람 인(人)” 자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 역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장애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당시 불혹을 넘겼던 내가 장애를 극복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 이렇듯 불가능해보였던 나의 소망이 마침내는 이루어져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불혹을 넘긴 내 나이와 장애에 상관하지 않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년 8월 무작정 필리핀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그곳에서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그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왔던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가씨들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내가 선택한 여성은 레오니자라는 이름의 미혼모였다.

필리핀에서 1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1983년생인 레오니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속이 짝 찢고 마음썸썸이가 야무지고 당당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전동휠체어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나를 최고로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곳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던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도 서로 그리워질 때마다 우린 서투른 언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부부에게 다리를 놓아주었던 사람을 통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중증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던 내가 필리핀에 두고 온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의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과하고, 필리핀 정부와 한국대사관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2009년 3월 19일에서야 필리핀에 있는 아내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반가움보다도 필리핀에서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했던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욱 컸다. 한국에서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었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어느 장애인공동체에 있는 조그만 방 한 칸에 살고 있었던 나는 필리핀에 있는 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공동체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꿀벌을 키우면서 조금씩 수입이 생겨서 한국에 있는 우리 부부는 생활면에서 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다.

아내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꿀벌을 키우는 일도 제법 잘 도와주었다. 그러다 흥동여성농업인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아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잘 모았고, 꿀벌을 키우는 일이나 내 뒷바라지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는 2009년 장애인기능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받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형제들에게 전해지면서 형님과 여동생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라고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마련해주었다.

2009년 11월, 우리부부는 드디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우리부부는 이후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다. 입양해야 할 딸 아실리와 아들 준표를 호적에 올리고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적이 필리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대사관과 필리핀대사관 및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복잡한 서류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할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부부는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300만원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어렵게 호적에 올릴 수가 있었다.

석 달이 지난 2010년 2월,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비행기 샅과 비자 수속 경비를 어렵게 준비해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아내는 두 아이와 장모님 비행기 표를 구해놓고도, 마무리할 서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를 먼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두 아이와 장모님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한국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두 아이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아내와 나는 많이 울었다. 다시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만들어 보내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두 아이와 장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

아이들이 어렵게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한국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규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받아주지를 않았다. 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홍성 다문화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기다리는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12년 3월, 법무부장관의 허락으로 아이들은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우리가족은 사랑의 결실로 두 딸과 막내아들을 더 낳게 되어 5남매를 가진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족은 홍성의 어느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오손 도손 잘 살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일과이다. 나는 우리가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큰딸 아실리는 동생들을 챙겨 식탁에 앉자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아내는 3개월 된 다섯째 우진이를 데리고 나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근면, 협동, 배려로 함께 나누는 행복한 우리집”이라는 가훈을 합창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아내는 곧바로 우리가족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첫째 딸 아실리는 동생들의 이부자리와 방을 정리한다. 아들 준표는 막내 우진이의 분유를 먹이는 등 동생을 돌봐주고, 수진이는 성경책을 정리한다. 넷째 아진이는 아빠 소변 통을 버리는 등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빠를 챙겨준다.

곧바로 학교에 가야 하는 아실리와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 세 남매의 뒷바라지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중증장애로 꿈쩍 못 하는 나의 뒷바라지도 불평과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 하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내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세면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시시콜콜한 부분들까지 모두 도와준다.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나를 다시 외출 전용 전동휠체어에 옮겨주고 배웅해준다.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불평불

만 없이 기쁨으로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첫째 딸 아실리는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한국에 온 첫 해에 환절기만 되면 천식이 생겨 자주 병원에 다녔는데, 폐렴까지 겹쳐서 위급했던 적도 있어 병원에 두 번 입원하기도 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해져서 태권도 품 띠 1품까지 받고, 아실리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가 많은 인기인이다. 엄마아빠가 없을 때는 집안을 책임지는 맏이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둘째 아들 준표는 울동을 잘해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사랑을 듬뿍 받고, 막내 동생도 잘 보살펴주고 있는 아들 준표는 책도 잘 읽고 아빠가 내주는 받아쓰기도 잘하는 똑똑한 장남의 역할을 다 해주는 것 같아 아빠인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우리가족의 새침때기이자 욕심쟁이인 셋째 딸 수진이는 발레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수진이의 꿈은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아진이가 있다. “엄마!”, “아빠!” 큰 소리로 부르면서 가끔씩 징징대기도 하고, 언니 오빠들의 공부를 방해하기도 하는 미소천사 아진이의 호기심은 대단하다. 궁금한 것은 뭐든지 다 물어본다. 지금은 언니와 오빠가 하는 게임들이나 울동들도 잘 따라한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 아내는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하게 훈계하기도 하는 여장부이며, 항상 우리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진행성 근육병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 출판, 포스터 등 각종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국제장애인기능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족 앞에 많은 시련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나왔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작은 행복들을 보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힘차게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

나의 꿈과 열정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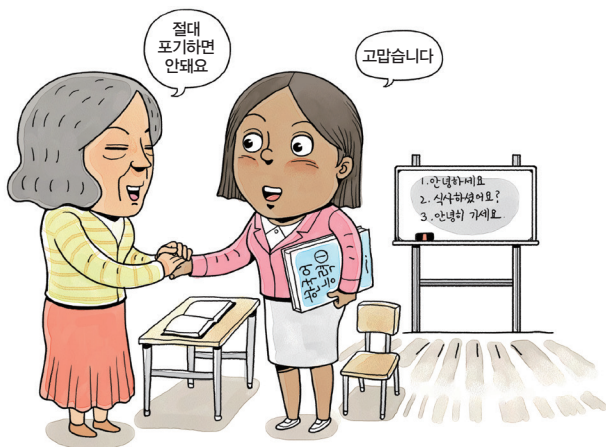
2

김민경
(대한민국)

우수상

저는 베트남에서 온 김민경 입니다. 한국에 온지 7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벌써 2년째 홀로 양육비 없이 10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연희입니다. 예쁘고 명랑한 아이인 연희는 아빠를 떠나 저랑 둘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얼마 전 연희가 학교 가는 길에 돌에 걸려 넘어져 발등에 뼈가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기브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돈도 제겐 부족했고, 당시 주야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때 연희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때 전화 한통이 왔어요. 같은 반 친구 은경이 엄마라는 분이셨어요. 연희하고 은경이는 같은 반 친구라며 연희가 다리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은경이 엄마는 휠체어도 빌려다 주고, 학교도 등하교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해서 한국인 남편에게 상처는 받았지만 제게는 정말 고마운 한국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홀로 서는데 그 분들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지 못했을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3년 동안 제 딸 연희의 장학금을 10만원씩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학금으로 연희가 좋아하는 영어 학원도 친구들 못지않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연희가 재밌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은 무엇보다 제게 큰 기쁨입니다. 다 도움 주시는 분들 덕에 제가 이런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항상 저 옆에 계시고 믿어주시는 다문화지원센터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저의 모습은 만족합니다. 알게 모르게 제 주변이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 아이 때문에 주야간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주간만 하는 소고기 식품회사 다니게 되었습니다. 8시간 근무이라서 돈은 안 되었지만 시간여유는 많았습니다. 먼저 다녔던 회사에서 그만두기 3개월 전에 새끼손가락 힘줄이 잘라져 치료 중이었던 저는 하루 종일 칼을 잡고 소고기를 부위별로 칼질을 해야 해서 손가락 통증 때문에 밤마다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다른 직장보다 월급이 조금 많았기에 통증은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2주일 지나니 통증은 느끼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저는 문득 '평생 노동일을 하면 지금은

젊어서 견디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찾아가서 선생님께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선생님은 야간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문화센터에서 검정고시 야간 봉사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 수원에 있는 제일평생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딸 등교를 도와주고 전, 회사로 출근하고 일 마치면 바로 야간 학교로 갔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그리고 아동센터에서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트남 친정엄마도 홀로 네 자매 키우셔서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 언니와 저는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일평생학교에서 저의 공부는 초등단계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딸 돌보고 한 몸으로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화가 나서 때리고 나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치면 방송통신 대학교 다니니까 집에 일찍 온다.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살자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니 엄마 같은 연령대 분들만 계셨습니다. 빠짐없이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주위 이모님들께 여쭙보고 배웠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사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2014년 4월에 초등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점수도 잘 나왔고 기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이모 같은 분, 할머니 같은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는데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겨냈습니다. 기쁜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합격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과정이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합격했습니다.’라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기쁨이 커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중학교 졸업시험을 공부해야 해서 매일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와 집으로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이웃 분들은 힘찬 응원과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반찬과 김치도 얻어서 먹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회사 언니들께 이해가 안가면 물어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한만큼 중학교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최종 마지막 고등만 남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뭐가 뭔지 모르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 머리 쓰면 쓸수록 좋아지나 봅니다. 한두 번 듣고, 또 들으니 재미있는 거예요. 한 겨울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학교 빠지지 않고 죽기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시험 한 달 전, 시험공부를 위해 4시간에서 5시간만 잤습니다. 그 날이 2015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긴장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첫 시간 국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문장이 길고 긴장되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 때 제일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괜찮다며 다음 과목 잘 보면 된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긴장을 풀고 다음시간 수학,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기대이상으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점수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채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선생님과 식사 후에 집에 가서 컴퓨터로 점수를 확인하니 569/700이었습니다. 뭘 듯이 기뻐서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화 드리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의 친절한 도움과 배려, 그리고 응원이 용기와 힘이 되었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학에 꼭 가야 되고 딸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저처럼 결혼 이주민으로 낯선 시선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나라, 제2의 조국 대한민국을 빛내는 똑똑한 여자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능으로 잘 지도하고 싶습니다. 아직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도움 받은 것처럼 저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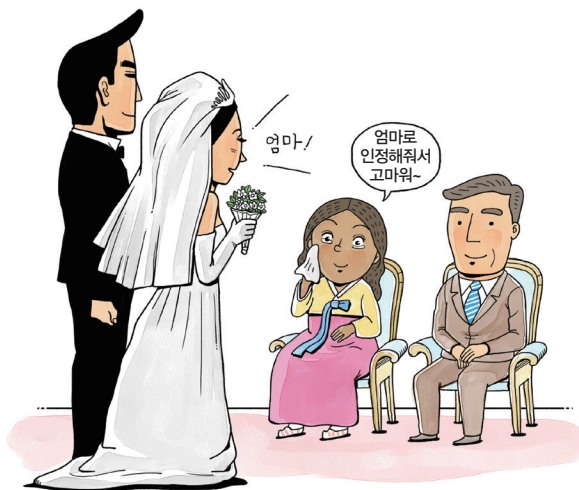
2

구지혜
(대한민국)

장려상

나는 베트남에서 가난한 농가의 세 자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장녀로서 언제나 동생들에 대한 배려와 부모님께 효심어린 마음과 자세로 살아왔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중단하고 일을 해서 엄마를 돕고 동생들을 돌봐줘야 했다. 이러한 나에게 한국남자에게 시집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입소문에 한국남자가 동경의 대상이었다.

바로 그때 한국남자와 선을 보자고 하는 이웃 언니를 따라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재혼하는 분이었고, 아이가 셋에 나이차이도 많이 나서 망설였지만 중매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내를 예뻐하고 더 사랑해준다”며 남편의 장점에 대하여 얘기했다. 그런데 웬지 남편이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져 나는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다. 엄마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완강하게 반대 했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엄마가 울면서 허락을 해주었다. 아버지 없이 맏딸인 나를 의지하



며 살던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나는 꼭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하며 한국행 수속을 밟았다.

2003년 크리스마스 날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낯설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겨울이라는 날씨였다. 베트남은 항상 여름이라서 추위와 눈을 본 적 없었는데 집안초자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보고 남편은 옷 가게 가서 그 많은 잠바 중에 제일 두꺼운 것을 사줬다. 그 해 겨울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추웠던 겨울로 기억된다. 지금 생각해보니 추위도 추위지만 물설고 낯선 땅에서 텅 빈 마음을 홀로 다스리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느라 더 춥고 떨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의 첫 느낌대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나를 배려하며 이해해 주었다. 남편 역시 순탄치 않았던 가정생활로 많은 상처를 입고 나와 결혼했는데 나는 남편에게 해주는 것도 없이 나로 인하여 자꾸 신경을 쓰게 해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다. 나는 20살 어린나이에 시집와서 남편의 아내역할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나이인 딸과 두 아들의 엄마 역할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남편과 결혼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측했지만 내가 조금 노력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옆에서 힘을 보태주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말이

라도 통하면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요리라도 잘 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한 달 정도 한국어를 배웠지만 기초밖에 몰랐고, 책으로만 공부해서 실제와 많이 달라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입을 떼기도 두려웠다. 나는 한국에서 병어리일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였다.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음식은 입에 안 맞아서 배는 고파 답답한데 날씨까지 추워서 밖에도 나갈 수 없어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었다. 육체적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참기가 더 어려웠다. 주변에서 내가 나이도 어리고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이라 많은 무시를 당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내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을 알고 내 앞에서 대놓고 젊은 아가씨가 돈 때문에 시집 왔으며 1년도 못 살 거라고 수군대기도 했다.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팠지만 모르는 척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속상했지만 그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못 한 것은 우리의 결혼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을 안 했지만 아이들의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았다. 큰 딸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둘째 아들은 나보고 ‘아가씨’라고 불렀으며, 다행히 셋째 아들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큰 반응이 없었다.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몇 번은 포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는지 잘 알기에 울고 쓰러지다가 또 다시 일어섰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진심을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 믿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을 아이들에게 쏟았다. 난 그때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에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었으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재를 구해서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셋째 아들에게 도움을 받고

나는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아들의 학생이 되었다. 집안일을 서둘러 끝내고 최우선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두 시간정도 하고나서 쉬는 시간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듣기를 연습하고, 외국영화의 자막을 보고 어휘와 문장표현을 공부했다.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공부하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노트와 볼펜을 갖고 다니다가 거리에 이정표나 간판을 보고 적어와 남편이나 아들한테 물어서 공부를 했다. 한글로 일기를 쓰는 것이 한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라고 알게 돼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한 두 문장밖에 못 썼으나 포기하지 않고 몇 개월을 사전하고 씨름하며 노력한 결과 많이 나아졌다. 글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싶어서 요리책을 사서 배웠고,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였지만 나의 요리솜씨도 점점 좋아졌다.

나의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 특별히 나와 동갑내기인 큰 딸하고 급속히 친해졌다. 요리책을 보며 요리도 같이 배우고 화장품 고르는 것과 예쁘게 화장하는 법도 딸이 가르쳐 주었다. 딸은 '딸의 결혼식 날' 생각지도 않았던 친정엄마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다. 사돈 식구들 앞에 나이 어린 외국인을 엄마라고 앉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라고 인정해 줘서 너무나 고마웠다. 딸이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 나에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20만원을 송금해주었다. 딸의 성의에 눈물 나도 록 행복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나를 인정해주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군대에 갔을 때 나는 몇 번 면회 갔었고 서로 친구처럼 편지를 주고받았다.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서 가끔씩 떼를 쓰고 힘들게 했지만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잘 따라주었다.

2005년에 나는 딸을 낳았다. 아이들 모두 다 동생을 예뻐하고 돌봐주어 어린 엄마인 나를 힘들지 않게 많이 도와줬다.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엄마께 보여주고 싶다고 친정엄마를 초청해서 한국에 모셔왔다. 기쁨과 감동이 가득해서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엄마도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베트남에 가실 때 딸한테 잘 해줘서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하셨다.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화목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2010년,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동해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통번역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대학 입학도 하였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중에 2012년 나는 두 번째 임신하였다. 소식 듣고 나와 가족이 혼란과 고민에 빠졌다. 사실 이번 임신이 우리의 계획 밖이었다. 남편은 나이가 있고 자식도 넷이나 있는데 하나 더 낳기 되면 우리가 힘들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제 공부와 자녀양육에만 힘을 쏟겠다고 결심하였다. 큰 딸은 시집갔고 아들 둘도 분가해서 직장을 다니니 집에 세 사람밖에 없고 조용했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리마음을 설레게 하고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았다. 모두 다 아이를 잘 낳았다고 하며 축하해주었다.



나는 이제 다섯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있고 키운 아이도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잘 해주고 사랑한다. 난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엄마이니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축복을 보답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살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것만 알면 OK!

PART 2

황유진
(대한민국)

장려상

“여기,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 스리랑카어 통역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사장님 한 분이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아침 일찍부터 센터에 온 것을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나보다.

“예, 제가 스리랑카 통역입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저는 OO산업이라는 회사 사장입니다. 스리랑카 통역이 긴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센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통역해 드리면 될까요?”

“야, 너 이리 좀 와봐, 빨리.”

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님은 어떤 근로자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그러자 저쪽에서 머뭇거리던 스리랑카 근로자 한 명이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들어온 스리랑카 근로자인



데요, 그런데 이 놈이 일을 너무 못해요, 매일 불량만 내구요... 아, 그리고 정말 한국말도 못하고 일도 이렇게 못하는 근로자들을 입국시켜도 되는 겁니까? 좀 제대로 된 애들을 받아야죠... 뭘 말을 알아먹어야 일을 시켜먹지, 이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 먹겠습니까? 그리고 이 놈이 자꾸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스리랑카로 돌아가라고 통역 좀 해 주세요.”

사장님이 걸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그 옆의 스리랑카 근로자는 불안한 모습으로 나와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스리랑카 근로자에게 이름과 나이 등을 물어보았다. 스리랑카 근로자의 이름은 ‘차민다’였고 나이는 28세였다. 나는 사장님의 말을 전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차민다가 다른 회사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일이 힘들고 월급이 적다는 것이었다.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차민다는 사장님을 설득해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양쪽의 의견이 너무 달랐다. 쉽게 끝날 통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센터에 내방한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별도의 심층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이

야기를 나누었다.

자리를 옮긴 후, 몇 번의 통역과 중재 끝에 사장님과 차민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 합의란, 1년간 차민다가 태업하거나 불량을 내지 않고, 일을 잘하면 사장님이 차민다의 이직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었다. 또한 차민다가 불만을 가졌던 음식문제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한국음식을 먹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민다가 회사 식당을 이용하여 스리랑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에 사장님이 동의해 주었다.

양쪽의 대화와 통역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장님이 불쑥 화제를 전환했다.

“차민다, 너 한국말 어떻게 할꺼야? 한국말 모르면 한국에서 일 못해, 알아? 앞으로 딱 한 달 준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와 관리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여라.”

차민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말문도 막혔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 점을 망각하고 그저 ‘빨리’만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사장님은 1개월만 공부하고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실 수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나의 역공에 사장님은 다소 당황하였다.



“사장님, 외국인근로자들과 대화할 때에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조사와 서술어를 생략하고 단어와 손짓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며 외국인과 대화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자신들은 일상적인 속도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느껴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단어 별로 끊어서 말해주면 말을 알아듣기가 쉬워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몇 가지 한국어 단어로 차민다와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시범을 보여 주자,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 주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내 자세를 가다듬고 다소 불만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에이, 단어고 문장이고 나발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로마에 가서 로마법 나 몰라라 할꺼야? 재들이 우리한테 맞춰야지, 우리가 왜 재들한테 맞춰?”

맞는 말이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내가 물려서면, 차민다가 회사로 돌아가서 언어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지만, 로마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로마 문화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부려먹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장님이 스리랑카 말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몇 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예끼, 이 사람아, 영어도 모르는 내가 스리랑카 말을 어떻게 공부해.”

“아니요, 정식으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몇 마디 중요한 단어와 간단한 문장만 외워서 사용해 보시라는 거죠”

난 사장님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들을 스리랑카 언어로 번역한 후, 이를 다시 한글 발음으로 옮겨 적어 사장님에게 드렸다. 이를 보고 사장님이 장난스럽게 몇 마디 따라 읽자, 차민다의 표정이 환해졌다. 차민다의 웃는 모습에 사장님은 재미가 있었는지, 내가 적어준 단어 몇 개를 더 읽었다. 이 모습을 보며 난 차민다가 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 일이 내 기억에서 사라진 어느 날,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스리랑카 통역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OO산업입니다. 기억나세요? 스리랑카 근로자 차민다하고 같이 센터에 방문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와 억양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했다.

“아, 기억납니다. 그 때 ‘차민다’라는 스리랑카 친구하고 같이 왔었죠?

난 내심 불안했다. ‘차민다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것은 아닐까...’

“다른 게 아니고, 거... 체류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죠? 차민다가 다음 달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데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년 더 연장하려고 한다는 사장님 말에, 나는 의아해하며 사장님에게 물어보았다.

“차민다 그 친구, 그 때 1년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사장님과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나도 이 친구 보내기 싫고, 이 친구도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어, 월급도 올려주기로 하고...”

그 때 그 일이 벌써 1년이 된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차민다가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난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사장님에게 또 물어보았다.

“차민다가 일은 잘 하나요?”

“당연하지, 우리 차민다는 내가 한국 사람 10명하고도 안 바뀐.”

사장님의 멋진 대답에 난 할 말을 잃어버렸다.

체류기간 연장 절차와 필요 서류들에 대한 나의 간단한 안내가 끝나자마자, 사장님이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다.

“거, 스리랑카 문장과 단어들을 한글로 조금 더 적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요즘 차민다에게 스리랑카 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더 있어서...”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차민다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나요?”

“아니, 그 반대예요, 요새는 나하고 한국말로 농담 따먹기도 한다니까... 이 녀석 말빨에 내가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스리랑카 말로 몇 마디 농담 좀 해 보려고...”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스리랑카 말들을 알려드리죠, 언제 한 번 저희 센터에 꼭 들리시죠.”

“예, 꼭 들르죠... 그런데 예전에 통역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구... 천천히 말하니까 차민다가 다 알아듣더라구... 거기다가 가끔 내가 스리랑카 말도 섞어서 말해 주니까 차민다가 아주 신나서 일을 하더라구요, 내가 스리랑카 말을 조금 하니까 이 친구도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센터에 가면, 통역 선생

님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시죠?”

“그럼요, 제가 잘 아는 스리랑카 식당이 있는데,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좋죠, 차민다가 요리하는 것을 주말에 가끔 같이 먹곤 하는데 아주 맛있더라구.”

며칠 후, 난 차민다 덕택에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가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난 그 날 사장님에게 많은 스리랑카 단어와 문장들을 적어주어야 했으니까... 특별 과외를 했다고나 할까?



‘외국인근로자들과 이야기 할 때는, 아주 천천히 말하기.’

‘외국인근로자들 출신 국가의 언어를 조금만 공부해서 직접 말해보기.’

이 두 가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권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실천해 본 사장님들은 그 효과를 알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받기를 원한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작은 배려를 실천할 때, 다문화 사회는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소설 같은 하루하루

PART 2

김매화
(대한민국)

장려상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시집온 두아이의 엄마 김매화라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울고 웃으면서 눈깜짝할 사이에 10년이 된거 같아요.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딱입니다.

친구소개로 남편을 만나고 2004년 따뜻한 봄날에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남편 한 사람만 믿고 타국에 도착한 심정은 두려움과 걱정, 또한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답니다. TV에서 보던 한국생활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나온 남편과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상봉하고 차를 타고 가도가도 끝이 없는것같은 전라도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몇시간 안되는 거리지만 처음으로 5~6시간이 길다고 느꼈습니다. 여수에 와보니 좋았어요, 바다를 볼수 있어서요.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종일 남편만 기다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자상해서 퇴근하면 저를 데리고 밖에 구경시켜주고 길을 알려주



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몇일동안 집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처음 출입국 방문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출입국에서 정겨운 중국말을 하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집이 무슨 동이냐고 물으니 세상에 여수가 아닌 순천이라네요. 지금이야 순천, 광양, 여수하면 잘 알지만 그 땐 어딘지도 모르고 다른 지방이라고만 알고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일도 출입국 앞에 와서 기다리면 누군가 여수에 사는 중국 친구가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나 외롭고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 결혼이민자들은 처음 한국오면 음식, 언어도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건 외로움이더라구요.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온지 3개월만에 임신을 하고 순식간에 외로움이 태교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바뀌어서 잘 적응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금방 한국으로 결혼해 오신분들~ 피임하지 마시고 자연에 맡기십시오^-^.

한국생활의 에피소드를 쓰라는데 10년 살면서 매일매일 소설속 주인공으로 삽니다. 시부모님은 전라도 강진분들이라 사투리가 심합니다. 특히 아버님은 약주를 즐기시고 치아도 없습디다. 틀니가 싫답니다. 그러니 발음이 새어나가고 말길을 못알아들어 조선족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우스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버님은 새벽

에 하우스에서 겁나게 달고 맛있다면서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를 따오셨어요. <새아가야 이 방울토마토 겁나게 달아라, 나는 거짓말 안하니 먹어봐라> 그때 어머니가 <어매 어째 쓰까~ 영감이 몰라도 너무 모르네, 요즘 젊은이들은 임신하면 크고 이쁘고 좋은것만 먹는대요, 어찌 저런 작은걸 따왔대요> 두 분다 저를 위하여 서로 의견충돌이 생겨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제가 먹는걸로 소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한번은 아버님이 동네 노인정에서 약주하시다가 누구랑 말다툼하고 돌아오셨어요. 그 이유인즉 어떤 동네분이 중국에서 시집온 며느리들은 도망을 그리 잘하더라고 아버님한테 며느리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나봐요. 아버님이 옥하셔서 <우리 며느리는 그런일 없으니 쓰잘데 없는 소리 하도 마시요>하면서 화가나서 돌아오셨다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는 항상 저를 믿고 이빠해주십니다. 그러던 아버님이 3년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참 그립고 의지가 됐었는데~지금도 아버님 생각하면 눈시울이 축축이 젖어듭니다.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 생각에~~~ 먹는 음식, 특히 젓갈이 많이 들어가는 김치도 잘 못 먹고 볶음요리를 좋아하는 저를 항상 이해해주십니다. 고부간에 갈등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야~ 어찌 어느 누구집 며느리는 한국온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한국말 잘하더라>하면서 자기집 3년넘은 며느리를 구박하고 비교한답니다. 어머니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어머니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가면 그쪽 언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급하십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구만.....자 머니머니 해도 남편이 저를 소설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분입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부부생활, 인생 참 어렵습니다. 성격이 꼼꼼한 제 남편, 처음엔 자상하고 좋더니 지금 살면서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아요^_^ 애 키울 때 한번씩 외출하면 엄마들은 분유, 기저귀, 여벌옷, 챙길것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몸만 챙기면 되니 빨리 준비가 되잔아요. 저보고 준비성이 없네 꼼꼼하지 못하네~~ 어우 지금 생각해도 남자가 너무 꼼꼼하면 여자가 피곤해요ㅋㅋㅋ 근데 또 애들은 잘 봐줘요~ 속마음은 안그런거 아는데 말을 꼭 툭툭하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 말씀을 하실 때 한번더 생각하면서 합시다. 툭툭 내 뺄지 마시고, 저번주 말한마디로 크게 싸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비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듣는 저는 마음 상하고 눈물나고~ 어우 부부싸움 동네방네 소문내네요.^_

저는 학교에서 방과후 중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어는 엄마들이 누구나 다 가르키면서 중국어는 학생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 수입이 적을 수밖에. 근데 차 기름값 떼고하면 제가 봐도 바빠 움직이는데 비해 적긴 적어요. 그리고 수업 준비하는 부분이 많아요,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큰 애가 자주 도와주다보니 자기도 커서 엄마처럼 중국어 방과후 선생님이 된다는거예요 저는 너무 기특하다고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이 뭐 정직도 아닌 방과후 선생이냐고 비하하는 말투가 들렸어요. 저는 방과후 선생은 선생도 아니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애들앞에서 잘 안싸우는데 결국 그날 애들 앞에서 서운해서 눈물, 콧물, 다 보여줬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래 애가 대견하다. 그리고 당신도 고생한다. 애쓰다. 남들이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존경하잔어> 이런 따뜻한 말이었는데.....애들 무섭다고 울고 저도 울고 남편이 그런뜻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결국 싸움이 막을 내렸지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알미워요(내가 소심한가? ㅋㅋㅋ).



남편분들 제발 따뜻한 말을 하시고 아내분들 타국에 와서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남편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밥상에 반찬하나 더 올라오고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애들한테 다정다감한 엄마로 다가가지 않겠나요? 애들 교육에도 신경 잘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호소하고 싶은건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결혼이민자를 보는 선입견이 너무 커요. 이걸 사회문제지만 어찌 색 안경을 거두워 주시면 좋겠구만요. 저희들도 지금은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 와서 애들 기본 둘은 낳고 한국인 구 증가에 큰 공헌을 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 여성분들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여수에서~~김매화가

저의 행복으로 나타난 천사들

PART 2

바두아로이다
(대한민국)

장려상

1995년 11월 11일 28살의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왔습니다. 너무나 낯선 곳이고 음식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3개월 동안 달걀하고만 밥을 먹었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아! 필리핀 사람들은 달걀을 좋아 하는구나”라고들 했습니다.

남편은 막내였지만 우리는 결혼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시아버님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이셨는데 제가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걸 아신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담배 피는 걸 싫어하니깐 끊으라고 하시자 정말 곧바로 집안의 모든 담배를 버리고 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작고 그리 멋있지도 예쁘지도 않은 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 주시고 존중해주신 이젠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지금도 제 가슴에 그리움으로 함께 계십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중풍으로 누워계셨는데 2010년 돌아가실 때까지 15년을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



수발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너무 힘들겠다고들 했지만 당시 저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시부모님은 제게 친정 부모님처럼 따뜻하셨으니까요. 제가 이화여대 어학당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우산도 안가지고 갔는데 비가 왔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께서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버스에서 내리자 한손엔 당신 우산을 쓰시고 다른 손에 드신 우산을 크게 흔드시면서 애야! 하시며 반갑게 저를 부르시는데 그 때 저 역시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얼른 우산을 받고는 펼치지도 않고 저도 모르게 아버님의 우산 속에 들어가서 아버님의 팔짱을 께 졌습니다. 그 날 제 가슴이 얼마나 포근하고 달콤했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가끔씩 친정엄마에게 하듯 반말도 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엄마, 우리 집은 작고 돈도 많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힘들고 불편한데 집도 넓고 잘사는 큰형님 집에 가서 살면 좋잖아?” 그러면 어머니는 “난 여기가 제일 좋다. 네가 없으면 난 재미가 없어”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3명의 귀한 보물들인 아이들을 낳았어요. 우리는 두 칸 좁은 집에 7식구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불편하긴 했으나 마음은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집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

각하고 남편과 의논하여 핸드폰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낮엔 아버님이 어머니를 돌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며 있었던 일을 저녁에 다 이야기 해드리며 함께 웃으며 지냈습니다.

일도 하고 시부모님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정말 바쁜 나날을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엔 4남매 자식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해 어머니 생신날엔 제가 몸이 안 좋았는지 다른 때보다 음식을 만들면서 몹시 피곤했는데 저녁에 남편 형님내외와 시누이 내외 모두 우리 집에 모여 축하 식사를 하고 여전히 모두들 설거지하나 도와주지 않고 간 뒤 저는 완전 파김치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들어서 그냥 방에 들어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기저귀는 차셨지만 대변을 잔뜩 봐서 요에 까지 묻혀 놓으셨습니다. 그걸 본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만 엉엉 소리 내어 울고 말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 보고는 그 때 초등학교 5학년 큰 아들이 “엄마 내가 할머니 용변을 치울테니까 가서 잠을 자” 하는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저는 그때 소리 내어 울만큼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를 알아주고 배려하는 고마운 우리 멋진 아들과 남편, 가족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없이 아름다운 우리 가족의 사랑이 지금도 한번 씩 힘들 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반짝 반짝 빛을 내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우리 가족에게 어둠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지요. 생계를 제가 다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남편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 공장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 원장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고자 어린이 집에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오기 전 필리핀에서 고등학교에서 농예과 교사로 근무했었기에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린이 집 아이들 중 한명의 어머니가 윤선생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를 통해 제 얘기를 듣고 윤선생 영어교실 원장님께 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윤선생 원장님께서 직접 제게 전화를 해 주셨어요. 로이다 씨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교육을 받고 영어선생님이 되면 어떻겠느냐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가족들 돌 볼 시간을 배려해서 일을 배정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고마운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생계는 부족하나마 꾸려갈 수 있었어요. 그 후 5년 동안 윤선생 영어교실 선생님이로 아주 기쁘게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11평 정도 되는 방 두칸 집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았으나 커가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서 제발 방이 3개 있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방을 따로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어느 분이 임대주택에 대해 알려 주셔서 남편에게 의논했더니 안 된다고 하며 집이 좁아도 그냥 살자고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고민 고민 많이 하다가 남편 몰래 남편 주민등록증을 살짝 가지고 국민은행으로 가서 매달 10만원씩 넣는 청약저축을 하고 말았어요.

3년 후에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일단 너무 기뻐했어요. 남편은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할까도 고민하는데 누군가가 당첨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하는 말에 청약하는 날 8시간을 줄서서 기다려서 했어요. 우리는 당첨이 되었어요. 일단 참 기뻐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 우리 가족은 1년 후에 방 3개가 있는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시부모님들도 또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4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지인의 소개로 이중언어 강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서울 교육대에서 양성과정을 공부하고 이중 언어 강사 수료증을 받고 현재까지 5년 계속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 강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남편은 다행히 회복되어서 아주 건강하진 않아도 실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년생인 든든하고 착한 첫째들과 이쁜 둘째 딸은 고 2년생이 됐고 사랑스런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 1년생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한국에 처음 온 필리핀 며느리를 사랑해주시고 항상 고맙다고 해주신 우리 시부모님과 어려울 때마다 좋은 이웃들이 천사처럼 나타나 좋은 길들을 제게 알려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산들을 잘 넘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한국에서 만난 저의 모든 천사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기다리며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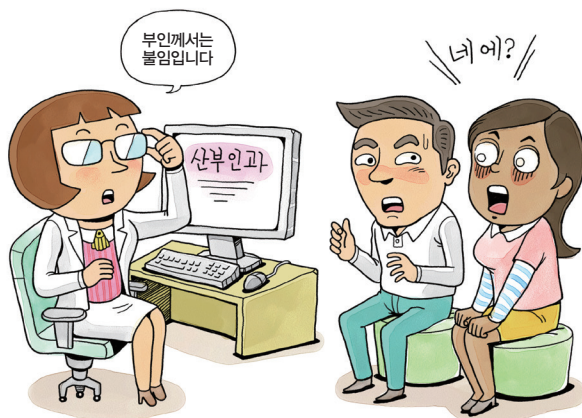
박은정
(대한민국)

장려상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박은정입니다.

나이는 34살이고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7남매 중 장녀입니다. 필리핀에서 집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약국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2003년 3월 30일 필리핀에 있을 당시 이모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드라마로 통해 알게 되면서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몸짓을 해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2003년 4월 21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슴에 안고 2003년 5월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필리핀에 계시는 부모님,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어머니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저마저 한국에 나와 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



을 벌어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가톨릭여성회관 한글 기초반에 등록하여 할머니, 아주머니들과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 친절하셔서 저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이 차츰차츰 익숙해질 무렵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희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돈을 보내주지 못해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정말 큰 꿈을 안고 왔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 않아 속이 상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를 도와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남편은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시댁에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누님 한 분만 계시는데 누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다녔지만 마음먹은 대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 소개로 저는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고 고되지만 조금이나마 고향에 돈을 부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차츰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때 남편이 저에게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산부인과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문제가 없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저 자신에게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불임 부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희망을 가슴에 품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술을 받는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으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의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몇 번이고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좌절을 했지만 남편은 대화도 많이 하고 이곳저곳을 데려다 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도 안정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습니다. 저의 간절함과 남편의 기다림 끝에 세 쌍둥이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임신에 성공은 했지만 임신 당뇨에 혈압까지 높아져서 계속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세 쌍둥이 중 두 명은 위험하니까 한 명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의논한 결과 한 명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도 기뻐하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2개월째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혈소판에 이상이 있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원어민 강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경남대학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 과정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2007년 10월 4일 산호동 지역의 아동센터에서 영어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의 고향에는 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동생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과 1주일에 두 번 만났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공부도 안하고 떠

들고 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차츰 아이들과도 정이 들고 아이들이 한 마디씩 영어로 말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아동센터에는 나가지 않지만 외로운 아이들이라 그런지 지금도 주말에는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합니다. 다들 엄마나 아빠가 없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놀아주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처음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고 있을 때 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견하는 양육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과 간식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한글 공부도 배웠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동사무소 일이며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곤 하였습니다. 양육 선생님을 보면서 “아, 나도 양육 선생님처럼 사랑과 따뜻한 관심으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민자들을 돌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에는 꼭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때 제 바람은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자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이민자들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을 도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게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낭송 대회에 나가서 특별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낭독을 한 것을 한 부분 적어 보겠습니다.



“부재”

어머님 안 계신 고향은 텅 비었다.

아무 곳도 마음을 둘 데 없는 빈 공간 천지에

곤궁한 내 꿀 웃음도 피눈물이다.

이 시는 너무도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필리핀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났고 벌써 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꼭 고향에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내년

으로 미뤄야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멘토, 멘테 봉사단협의회에 가입하여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의 멘토로 매일 출입국에 가서 열심히 상담하고 한국생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한국요리도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기도 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지금도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 출입국으로 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였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2월 14일 경남이주민센터에서 필리핀이주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대표를 맡아 필리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통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의 임기로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역봉사협의회에 가입하여 필리핀 이주여성과 근로자를 위하여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일부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필리핀 통역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들을 위하여 통역과 애로사항 및 한국생활에 대한 고충 상담하고, 취업기간만료가 되어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국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와서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기도 한데 저와 같은 다문화가족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비만 계속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태양이 비치는 맑은 날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의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생일에는 잊지 않고 꼭 꽃다발을 선물해줍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